

지역 매 아 리

김제시, 간부공무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전주시 감사담당관 인권센터 황지영 옹호관을 초빙하여 "성희롱 우리는 관장을 까요?"라는 주제로 직장내 성희롱 근절을 위해 간부공무원 역할의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인식시키고, 우리 사회 여성폭력 피해자 실태와 직장에서의 조직문화 감수성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성희롱·성폭력 없는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실시된 이번 교육에서는 간부공무원들의 역할뿐만 아니라 양성 평등문화 정립에 대한 이해와 문제 발생 시 처리과정 및 2차 피해 예방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미란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직장 내에서 발생 가능한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직원들 간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관리자로서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제시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일부개정 및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수립과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와 사이버 신고센터까지 운영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보건소, 5-28일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운영

김제시 보건소는 관내 거주 임산부를 대상으로 예비 엄마들의 출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출산과 양육에 도움을 주고자 '2019년 4분기 임산부 출산준비 교실'을 운영한다.

4분기 출산준비교실은 11월 5일~2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은 정신건강증진센터, 국제모유수유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이뤄지며 ▲모유수유 자세 및 방법 ▲아기용품 만들기 ▲신생아 목욕 및 마사지 ▲분만호흡법 및 요가 ▲산전·산후우울증 예방 및 관리 등 임신·출산·육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임산부 출산준비교실에서 실시하는 태교·출산·양육 교육을 통해 많은 임산부가 건강한 아기와 축복된 만남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지속적으로 출산교실을 운영해 임산부의 건강을 도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시민운동장 야외공연장에서 '제10회 김제시 평생학습한마당'이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학습추억으로 가을을 물들이다

김제시, 평생학습한마당 작품발표회 등 110여종의 체험부스 학습열기 뜨거워

김제시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시민운동장 야외공연장에서 개최된 '제10회 김제시 평생학습한마당'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어 풍성하고 알찬 학습추억으로 만추의 가을을 물들이며 성황리에 마쳤다.

올해도 10회째 개최된 김제시 평생학습한마당은 "배움으로 하나 되는 정의로운 김제!" 라는 주제로 141개 평생교육기관 단체가 참여하여 체험학습과 무대공연발표회, 성인문해한마당 등 다양한 학습과정으로 구성되어 시민들의

뜨거운 학습열기와 호응이 이어졌다.

시민운동장 잔디광장을 가득메운 110여종의 체험부스에서 다양한 학습체험을 비롯하여 평생학습관·여성회관 수강생 작품발표회 등 70여 가지 다양한 체험마당이 펼쳐진 배움 마당에서는 유아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관람객의 체험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또한 학습동아리, 주민자치센터, 여성회관 수강생 발표회, 청소년 동아리 발표마당 등의 공연발표가 이어진 발표마당에서는 그동안 배웠던 학습을 뽐내고 발표하는 무대가 진행되었고 추억의 교실, 행복학습 페스티벌, 성인문해 거리시화전 등 다채로운 학습행사도 펼쳐져 쌀쌀해진 날씨에

도 시민들의 학습열기로 뜨거웠다.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배움 마당에서 참여한 체험 작품을 들 어올리며 '다채로운 체험과 행복 해하면서 공연하는 동아리 참여 자를 보면서 배움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서원태 인 재양성과장은 '인생100세 시대를 맞이한 현대사회에서 비전 있는 미래세대의 해법은 바로 평생학습이라고 전하며 나를 위한 학습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상생의 행복학습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도 시민과 함께 성과를 공유하고 배움을 나누는 재능기부의 장을 만들어 더 많은 시민이 평생학습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확대간부회의 개최

주요사업 국비확보 신규사업 발굴 상황 등 점검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국소실장 및 부서장 58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부서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와 토론, 부서별 협조사항 공유, 당부사항 등을 전달했다.

이날 박준배 김제시장은 부서별 현안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주요사업 국비확보와 공모사업 신규사업 발굴 상황 등을 점검하고 제233회 2차 정례회 준비와 동결기



종합대책 추진 등 치질 없는 업무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시민의 애로사항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현장

행정과 정확한 시정홍보를 통해 시정발전 역량을 결집해달라고 강조했다.

박준배 시장은 "오는 정례회 기간 중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 발전과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예산이 꼭 편성될 수 있도록 시 의회에 충성한 설명을 통해 대비하기 바라며, 한해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시기에 연간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아이들에게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

완주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선정

드림스타트 대상 1가정 540만원 지원받아

완주군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선정으로 주거환경 취약계층에 한지 벽지와 장판을 지원했다.

완주군은 신협중앙회가 후원하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에서 주관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선정돼 용진읍 가정의 도배장판을 교체했다.

이번 사업은 친환경 소재인 한지를 활용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완주군이 사업에 선정되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드림스타트 대상 1가정이 54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도배에 사용된 한지벽지는 새로 개발된 수백차단 초배지로 특히 아동방의 사면을 색이 다른 한지를 사용해 정서적 안정감을 갖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한, 통기성과 습도 조절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지열가정의 난방비 절약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을 받게 된 아동의 아버지는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집 같아 아이에게 항상 미안했는데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외에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는 아동가정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아동의 방에 책상, 침대, 서랍장 등 200만원 상당 가구를



완주군이 용진읍 가정의 도배장판을 교체했다. 도배에 사용된 한지벽지는 새로 개발된 수백차단 초배지를 사용했다.

추가로 지원했다.

완주군 교육이동복지과 관계자는 "완주군 지역에 살고 있는 아동들에게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회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신협중앙회는 봉사활동과 함께 청소년들에게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 상관면 하천정비 내년 본격 추진

신리(어두교)~ 용암리(명덕교)까지 6.5km 구간 총 277억원 투입

완주군 상관면의 상습적인 침수피해와 수질개선을 위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내년 2월까지 실시계획을 완료하는 등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완주군은 최근 상관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관면 신리(어두교)에서 용암리(명덕교)까지 6.5km 구간에 총 277억원을 투입하는 전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전주천의 종합적인 정비와 하천연안의 농토와 가옥의 홍수피해 보호 등을 통해 주민들의 안정된 삶의 질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군 관계자와 용역업체, 지역주민 등 이해 관계인들이 참

여해 전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공사 중 발생할 불편사항을 적극 협조 당부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전주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2020년 2월까지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용역과 지장물 보상 등을 거쳐 같은 해 6월 공사를 발주하게 된다.

이 사업은 오는 2023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이다.

완주군은 "이번 정비 사업을 통해 상습적인 침수피해와 수질개선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안정된 삶의 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